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박 수 길[†] 이 영 희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에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 성별에 따라 부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5개 대학교 남녀 학생들 1,140명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의 척도, 즉, 진로결정 수준 척도, 부모와의 애착 척도,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척도, 자아정체감 성취수준 척도, 그리고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수준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와의 심리적 독립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전체 대학생에게 있어서 직·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었으며 모와의 애착과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효과는 가족변인 중 모와의 애착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부와의 애착만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체효과가 가장 큰 가족변인은 모와의 애착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모와의 심리적 독립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체효과가 가장 큰 가족변인은 모와의 애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변인을 포함한 가족변인은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특히 가족변인은 양부모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진로상담에 있어 성별에 따른 접근을 시도해야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진로결정 수준,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성취,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박수길은 숙명여자대학교 시간강사, 이영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처자 : 박 수 길, (140-120)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90
전화 : 02-706-2540 E-mail : sugill@shinbiro.com

대학생에게 있어서 졸업 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본인의 자아 실현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에 진로결정은 개인발달에 중대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또한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Osipow, Carney, & Barak, 1976).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진로정체감(Holland & Holland, 1977), 통제의 소재(Taylor, 1982), 자아정체감(Blustein & Noumair, 1996; Blustein & Phillips, 1990; Blustein, Devnis & Kidney, 1989) 등이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진로상담 및 연구에서 개인에만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환경 요인에는 소홀했음을 입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보다 '관계'를 중요시하고,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보다는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함으로서, 가족관계가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까지의 심리적 발달에 중핵을 이루고 있다. 이는 유교적인 가족중심주의 문화 구조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 전 생애 발달 관점은 후기 청소년기 동안에도 심리적 독립 못지 않게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enny, 1987; Lapsley, Rice & Shadid, 1989).

한편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청소년의 심리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서구 사회의 심리적 독립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주요한 발달 과제로 등장하는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 후기는 부모로부터의 의존에서 벗어나 일방적이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쌍방적인 관계로 전환되며 시기이다. 예컨대, 정신 분석적 접근은 후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과제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등을 제시했다(Blos, 1979). 또한 가족체계 관점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의 분리 개별화

즉, 심리적 독립은 후기 청소년기의 커다란 심리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며, 진로결정 수준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를 가져오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언급했다(Lopez & Andrews, 1987).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진로결정 수준 혹은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가족변인과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미결정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Lopez, 1989). 예컨대, 진로결정 수준을 포함한 진로발달에 관한 측정도구의 다양성과 상이한 표집 방법으로 인하여 각각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진로결정 수준과 가족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후기 청소년기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는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변인에 집중되어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을 설명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변인을 포함하여 가족변인을 함께 연구해야함은 마땅한 일이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과 독립은 성별에 따라 양 부모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Blustein et al., 1991; Lopez, 1989; O'Brien, 1996; Ryan, Solberg & Brown, 1996). 먼저 성별과 가족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성 역할 사회화 개념 및 사회 문화적 풍토와 관련하여, 성별에 있어서 다르게 발달

한다(Chodorow, 1978; 유은희, 1991). 전통적 성 역할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애착으로, 남성은 자율성으로 정의된다(Chodorow, 1978). 반면, 부모의 성별과 관련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애착정도가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애착정도가 높음이 보고되었다(유은희, 1991). 또한 어머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구심점이 되고 남성·여성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애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Gezaine, Debry & Liesens, 2000). 특히, 부모와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풍토를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넷째, 가족변인과 진로결정 수준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Lopez(1989)는 구조적 가족 이론(Structural family theory)을 근거로 진로 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검증한 결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 정체감의 주요한 예측변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남성의 경우,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부부갈등의 부재, 그리고 더 적은 정도의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예측변인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갈등적 독립만이 진로 정체감의 주요한 예측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남녀 모두 심리적 독립과 관련되어 있으며,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독립은 반대의 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Blustein 등(1991)은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과정에 대한 진로의사 결정 관여와 관련된 심리적 분리와 부모와의 애착의 정도를 함께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부와의 애착, 태도적 독립, 갈등적 독립이 진로관여 과정에서 예측요인이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은 관여 과정에

있어 발전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자신이 아버지의 태도, 가치 및 신념들에 대해서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로 관여를 더 쉽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과 애착은 진로수행에 진전을 가져왔으며, 진로선택 과정과 관련하여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이중적인 자세라고 일컫는 폐쇄 경향성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남녀 모두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아버지·아들 관계는 후기 청소년 남성들의 진로 발달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혼합된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성별에 따라 가족변인은 진로결정 수준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성별에 따른 가족변인에 대한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변화 및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본다. 예컨대, 단순히 진로 정보차원의 진로상담이 아니라 내담자의 특성, 문제의 성격, 내담자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내담자를 진단하고 그에 적절한 상담 전략을 시도해야 하는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의 접근에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진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진로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가족의 역동에서 부모와의 자율성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상담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내담자들의 진로 결정에 적절한 탐색과 고려를 방해하고 있음을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변인으로 후기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과 자기 효능감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후기 청소년기의 대학생은

자율성, 능력 및 정체감을 획득하는 기간으로 간주되며(Chickering, 1969), 자아정체감은 진로발달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박아정과 신순란(1999)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 결정 유형 및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정체감의 하위 요인 중 미래확신성과 주도성이 높을 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lustein 등(1989)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과 진로발달 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결과, 정준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 의사결정, 취업, 그리고 직업 적응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한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획득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활동이 정체감 유예 및 성취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혼란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사실 진로발달과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유예 및 정체감 성취는 각각 진로의사 결정의 계획 및 관여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Guerra & Braungart-Rieker(1999)은 169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정체감 형성이 진로 미결정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체감에서 유예와 혼란은 어머니의 독립에 대한 지지와 진로미결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예와 혼란에 높은 점수를 가졌던 학생은 진로미결정임이 드러났다. 즉,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 효능감은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윤운성, 1996). 이론적으로 자기 효능감 형성은 개인적 숙달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족변인과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을 연결시킨다면, 부모와의 애착은 활발한 탐색을 하는데 격려가 됨으로서, 자녀의 숙달 경험을 증진시켜 주어 안정된 기초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진로결정 수준 가족변인 및 개인변인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은 진로결정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셋째, 부모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진로상담에 있어서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 개입과 전략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대학생을 대표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을 포함하여 표집대상으로 4개의 도를 선정하여 표집을 하였다. 표집된 학교는 강원대학교(강원도), 충북대학교(충청도), 동신대학교(전라도), 부경대학교(경상도), 숙명여자대학교(서울), 서강대학교(서울) 등이다. 총 1,350명을 대상으로 2000년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1,18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47부가 제외된 1,140부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140명(N)의 일반 대학생이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각 대학별로는 가급적 학년, 성별 등이 고루 포함되도록 배려하여 표집하였다. 총 표집인원은 1,140명이며, 이중에는 남학생이 565명(49.6%)이고 여학생은 575명(50.4%)이다. 학년별 구성은 1학년 386명(33.8%), 2학년 263명(23.1%), 3학년 252명(22.1%), 그리고 4학년이 240명(21%)이다.

측정도구

진로결정 수준 검사

일반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 Carney, Winer, Yanico 외Koschier(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 수준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우리 문화에 맞게 적절한 표현으로 번안한 것으로,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문항 18개 문항과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의 2문항은 전공선택과 진로에 대한 확신 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개의 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 조건을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피험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채점에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 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문항 3-18을 역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Osipow 등(1980)이 보고한 이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및 .82였고, 고향자(1992)의 번역본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Cronbach의 α 계수는 .86, 반분신뢰도 .80, 검사-재검사 신뢰도 .79 등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계수는 .86 등으로 나타나 고향자(1992)의 검증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 검사

부모와 애착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등(1987)이 개발한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중에서 부모와의 애착 척도만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애착 검사는 원래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애착 양상이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취지를 근거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해서 평정할 수 있도록 검사를 구성하였다. 애착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요인이 있다.

전체 48개 문항을 예비조사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았던 아버지와의 애착 24개 문항, 어머니와의 애착 13개 문항이 요인으로 둘여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요인은 동일한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조사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았던 아버지 애착 24개 문항, 어머니 애착 13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소외감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채점을 한다. 신뢰감과 의사소통 문항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의 점수를 뺀 것이 개인의 애착 점수가 된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뜻한다.

Armsden 등(1987)이 보고한 본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3 이었고, 정정숙(1994)이 보고한 어머니 애착 Cronbach α 계수는 .88이었고 아버지 애착은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 애착 Cronbach α 계수는 .78 아버지 애착 .81 등으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는 어머니 애착 Cronbach α 계수는 .88, 아버지 애착 .73이었다.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검사

일반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 Hoffman(1984)의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PSI)를 사용하였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은 갈등적 독립, 태도적 독립,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으로서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원래 이 검사는 정은희(1992)가 번안 수정한 아버지 어머니 각각 56개 문항을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은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은 원래의 하위 영역과 일치를 보이며 명확하게 두 요인으로 나타나, 세 요인 구조를 보였다. 이는 이준엽(1994)의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척도의 타당화 검사에서 세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검사는 예비조사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았던 아버지 독립 35개 문항 어머니 독립 34개 문항으로 묶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인 분석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갈등적 독립 및 태도적 독립, 그리고 기능·정서적 독립을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는 1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채점한다. 이 심리적 독립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의 정도가 높은것을 의미한다. 이준엽(1994)은 내적 합치도 및 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측정도구는 높은 내적 일치도 .79~.92와 재검사 신뢰도 .66~.91로 보고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어머니 독립 Cronbach α 계수는 .84 아버지 독립 .82였으나 본 조사에서의 어머니 독립 Cronbach α 계수는 .81 아버지 독립 .83 이었다.

자아정체감 검사

최초의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OMEIS)는 Adams, Shea와 Fitch에 의해 1979년 제작되었으며 Marcia와 마찬가지로 직업, 정치, 종

교 영역에 관한 위기와 관여를 살펴보는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 Erikson의 저서를 통해 자아정체감의 영역을 관념적 영역과 대인 관계적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관념적 영역에서는 직업, 정치, 종교 및 철학적 생활 방식을, 대인 관계적 영역에는 우정, 이성 교제, 성 역할 및 여가활동 등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이 8영역의 6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1(EOMEIS-1)이 Grotevat와 Adams에 의해 1984년 제작되었으며, 대인 관계 영역의 항목들을 수정 보완하여 Adams와 Bennion은 1986년 EOMEIS-2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아정체감 검사를 송설희(1994)가 우리문화와 감성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영역마다 성취, 유예, 조기폐쇄, 혼란으로 구성되었다. 각 수준마다 대인 관계와 관념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에는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정체감 조기폐쇄, 정체감 혼란 수준 등의 네가지 요인이 있다.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정체감 성취수준만을 다루기로 한다. 정체감 성취 수준 (Identity Achievement: IA)은 이미 위기를 경험하고 비교적 강한 관여를 보이는 상태이다. 따라서 안정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며 상황적 변화에 동요 없이 성숙한 정체감을 소유하게 된다. 자아정체감 성취수준의 총 점수는 최저 6점(6×1)으로부터 최고 24점(6×4)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총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의 정도는 6, 8, 10, 19, 22, 27의 문항점수를 합한 것이다. Adams와 Bennion(1986) Cronbach α 계수는 .58~.80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46~.79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68

을 보여주었다.

자료분석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 검사

일반 대학생들이 진로탐색 활동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의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olberg, Good와 Nord(1993)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Search Self-Efficacy Scale; CSES)를 구성하고 있는 35개 문항을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예비조사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았던 2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0)에서 ‘매우 그렇다’(9) 까지 9점 척도로 되어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career search self-efficacy)은 직업탐색 효능감, 면접 효능감, 관계구축 효능감 개인적 탐색 효능감을 포함한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95이었으며 본 조사에서도 .95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절차

검사의 실시는 표집 대상 학교별로 검사 협조자를 선정하였다. 검사 협조자는 대부분 해당 학교의 교수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하거나 협조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실시를 위해서 연구자가 “검사 실시 지침서”를 따로 만들어 각 교수에게 제공하였다(피검자에게 신뢰되는 검사가 되기 위한 알림과 교수가 검사 실시 전에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기록). 일부분은 본 연구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2000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대상 자들이 검사 시작 후 약 30분을 전후하여 검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 Program SAS를 이용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가장 주된 분석 내용인 예측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에 앞서서,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t검증이 선행되었다.

본 연구의 가장 주된 관심은 독립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첫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단순상관을 구하고, 둘째, 회귀분석을 반복해서 유의한 회귀계수를 산출하고, 셋째, 유의한 변인을 가지고 도식화하고, 넷째, 도식화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직·간접의 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시도되었고, 결과에 근거하여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성별로 분리하고, 아버지·어머니를 별도로 나누어 분류 분석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및 해석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수준에 독립변인, 즉 가족변인 및 개인변인들이 어떠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통해 먼저 알아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관관계는 표 2, 표 3에 각각 제시되어있다.

표 1. 가족변인·개인변인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상호 상관관계: 전체(N=1140)

변 인	1	2	3	4	5	6	7
1 진로결정수준	1.00						
2 부애착	.17***	1.00					
3 모애착	.22***	.54***	1.00				
4 부심리적독립	.10	-.04	-.08***	1.00			
5 모심리적독립	.13***	-.03	-.06*	.46***	1.00		
6 정체감 성취	.23***	.11***	.16***	-.12***	-.14***	1.00	
8 자기 효능감	.49***	.25***	.31***	-.01	.02	-.41***	1.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2. 가족변인·개인변인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상호 상관관계: 남학생(N=565)

변 인	1	2	3	4	5	6	7
1 진로결정수준	1.00						
2 부애착	.21***	1.00					
3 모애착	.25***	.51***	1.00				
4 부심리적독립	.14***	-.18	.11**	1.00			
5 모심리적독립	.14***	.00	.02	.55***	1.00		
6 정체감 성취	.21***	.15***	.19***	-.18***	-.12**	1.00	
10 자기 효능감	.42***	.36***	.36***	-.03	-.02	.38***	1.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가족변인·개인변인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상호 상관관계: 여학생(N=575)

변 인	1	2	3	4	5	6	7
1 진로결정수준	1.00						
2 부애착	.12***	1.00					
3 모애착	.18***	.57***	1.00				
5 모심리적독립	.06	.09*	-.16***	.40***	1.00		
6 성취	.25***	.06	.16***	.06	-.17***	1.00	
10 자기 효능감	.53***	.15***	.26***	-.03	-.02	.45***	1.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1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정도가 높고, 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성취수준의 정도가 높으며, 모와의 애착도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가족변인과 자아 정체감 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가족 변인 중 모와의 애착과 정체감 성취수준은 유의한 상관을 보여 주었으며, 가족변인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의 여학생의 경우, 부와의 심리적 독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진로결정 수준, 가족변인 및 개인변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진로결정 수준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2.99$, $p<.001$). 즉,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의 심리적 독립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t=-2.07$, $p<.05$). 모와의 심리적 독립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의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t=6.86$, $p<.001$). 남학생의 모와의 심리적 독립 평균은 9.76, 여학생의 모와의 심리적 독립 평균은 9.25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효능감에서 남·녀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6.30$, $p<.001$).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의 경로분석

본 연구의 가장 주된 관심인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수준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표 4. 성별에 따른 t검증

변 인	남(N=565) 평균(표준편차)	여(N=575) 평균(표준편차)	t
진로결정 수준	2.70(0.48)	2.57(0.47)	2.99***
부와의 애착	3.81(1.60)	3.64(1.71)	1.72
모와의애착	4.27(1.29)	4.19(1.34)	0.94
부와의 심리적독립	10.35(1.33)	10.50(1.13)	-2.07*
모와의 심리적독립	9.76(1.30)	9.25(1.23)	6.86***
정체감 성취	2.51(0.50)	2.49(0.49)	0.70
자기 효능감	23.89(5.53)	21.80(5.65)	6.30***

주. * $p<.05$ ** $p<.01$ *** $p<.001$

실시하였다. 그와 함께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에서의 표준화 부분회귀계수(β)를 가지고 경로분석 모형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직접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먼저 아래의 표 5는 경로분석 과정에서 실시하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분석은 첫 번째로 진로결정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일회 실시하고, 두 번째로 자아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세 번째 자기 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실시하였다.

이어서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만을 가지고 경로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아정체감 성취 전체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명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계산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 의하면 모와의 애착($\beta=.14$, $p<.001$)은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beta=.06$, $p<.05$)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와의 심리적 독립($\beta=-.09$, $p<.01$)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beta=-.09$, $p<.01$)은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beta=.06$, $p<.05$)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의 애착($\beta=.12$, $p<.001$) 및 모와의 애

표 5. 전체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β	표준오차	T
진로결정 수준	모와의 애착	0.27	0.07*	0.01	2.09
	모와의 심리적 독립		0.11***	0.01	3.89
	부와의 애착		0.02	0.01	0.94
	부와의 심리적 독립		0.07**	0.01	2.69
	자아정체감 성취		0.06*	0.02	2.26
	자기 효능감		0.44***	0.00	15.38
자아정체감 성취	모와의 애착	0.04	0.14***	0.01	4.06
	모와의 심리적 독립		-0.09**	0.01	-2.65
	부와의 애착		0.02	0.01	0.55
	부와의 심리적 독립		-0.09**	0.01	-2.61
자기 효능감	모와의 애착	0.10	0.25***	0.15	7.27
	모와의 심리적 독립		0.05	0.14	1.58
	부와의 애착		0.12***	0.12	3.52
	부와의 심리적 독립		-0.04	0.15	-1.14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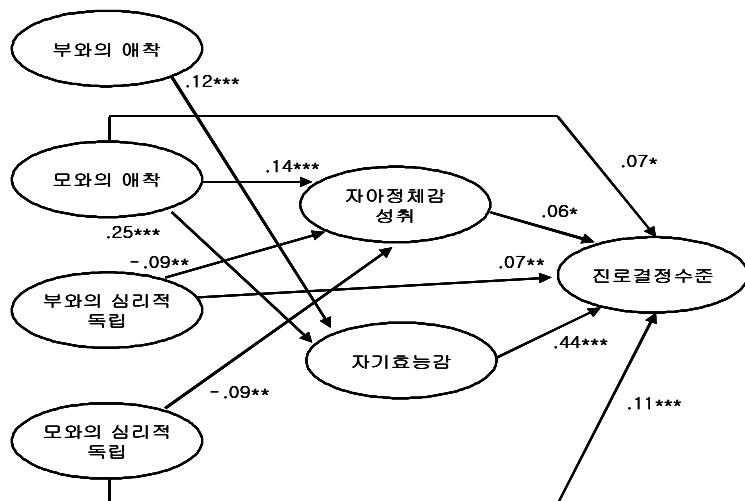


그림 1. 전체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착($\beta=.25$, $p<.001$)은 자기 효능감($\beta=.44$, $p<.001$)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에 의하면 전체 대학생에게 있어서 진로결정 수준의 직접효과는 모와의 심리적 독립, 모와의 애착, 부와의 애착순이었으며, 간접효과는 모와의 애착, 부와의 애착, 부와의 심리적 독립, 모와의

심리적 독립의 순이었다. 전체효과로는 모와의 애착, 모와의 심리적 독립, 부와의 심리적 독립, 부와의 애착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녀의 회귀분석 결과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 7와 표 8에 제시되었다. 또한 이 결과에 의해 얻어진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유의도를 통해 검증된 경로모형을 성별에 따라 제시하면 그림 2과 그림 3과 같다.

남·녀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경로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모와의 애착($\beta=.08$, $p<.05$), 부와의 심리적 독립($\beta=.11$, $p<.05$) 및 모와의 심리적 독립($\beta=.12$, $p<.01$)이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와의 애착($\beta=.12$, $p<.05$) 및 부와의 심리적 독립($\beta=-.17$, $p<.001$)은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beta=.09$, $p<.05$)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전체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부와의 애착	-	.05	.05
모와의 애착	.07	.10	.18
부와의 심리적독립	.07	-.01	.06
모와의 심리적 돋립	.11	-.01	.10
자아정체감 성취	.06	-	.06
자기효능감	.44	-	.44

표 7. 남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β	표준오차	T
진로결정 수준	모와의 애착	0.23	0.08*	0.01	2.00
	모와의 심리적 독립		0.12**	0.01	2.76
	부와의 애착		0.02	0.01	2.64
	부와의 심리적 독립		0.11*	0.01	2.47
	자아정체감 성취		0.09*	0.03	2.40
자아정체감 성취	자기효능감	0.06	0.35***	0.00	8.30
	모와의 애착		0.12*	0.02	2.55
	모와의 심리적 독립		-0.03	0.02	-0.55
	부와의 애착		0.09	0.01	1.81
자기 효능감	부와의 심리적 독립	0.17	-0.17***	0.02	-3.55
	모와의 애착		0.25***	0.19	5.45
	모와의 심리적 돋립		0	0.20	-0.00
	부와의 애착		0.23***	0.16	5.16
	부와의 심리적 돋립		-0.05	0.19	-1.12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여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β	표준오차	T
진로결정 수준	모와의 애착	0.29	0.03	0.01	0.81
	모와의 심리적 돋립		0.07*	0.01	1.81
	부와의 애착		0.04	0.01	0.94
	부와의 심리적 돋립		0.05	0.01	1.35
	자아정체감 성취		0.03	0.03	0.80
자아정체감 성취	자기효능감	0.0427	0.51***	0.03	12.67
	모와의 애착		0.16**	0.02	3.24
	모와의 심리적 돋립		-0.15***	0.02	-3.34
	부와의 애착		-0.05	0.01	-0.91
자기 효능감	부와의 심리적 돋립		0	0.02	0.07
	모와의 애착		0.25***	0.21	5.01
	모와의 심리적 돋립		0.01	0.21	0.12
	부와의 애착		0.01	0.16	0.24
	부와의 심리적 돋립		0.04	0.22	0.82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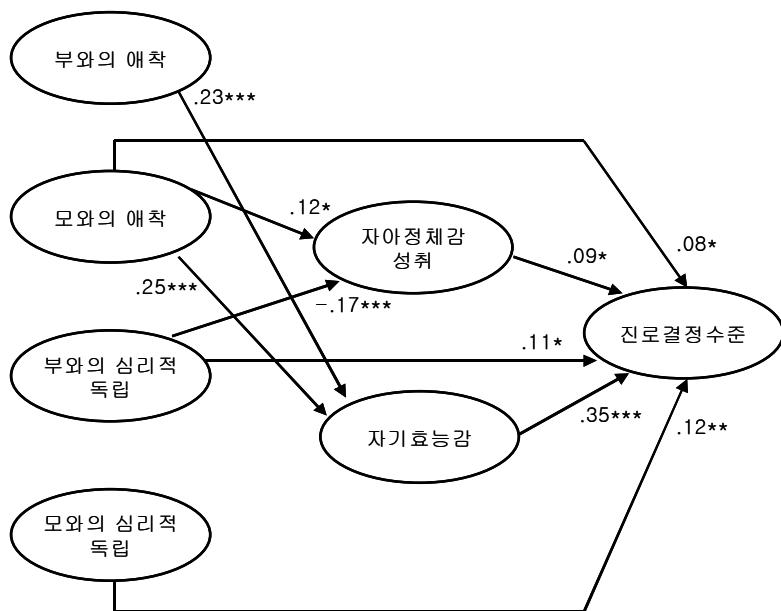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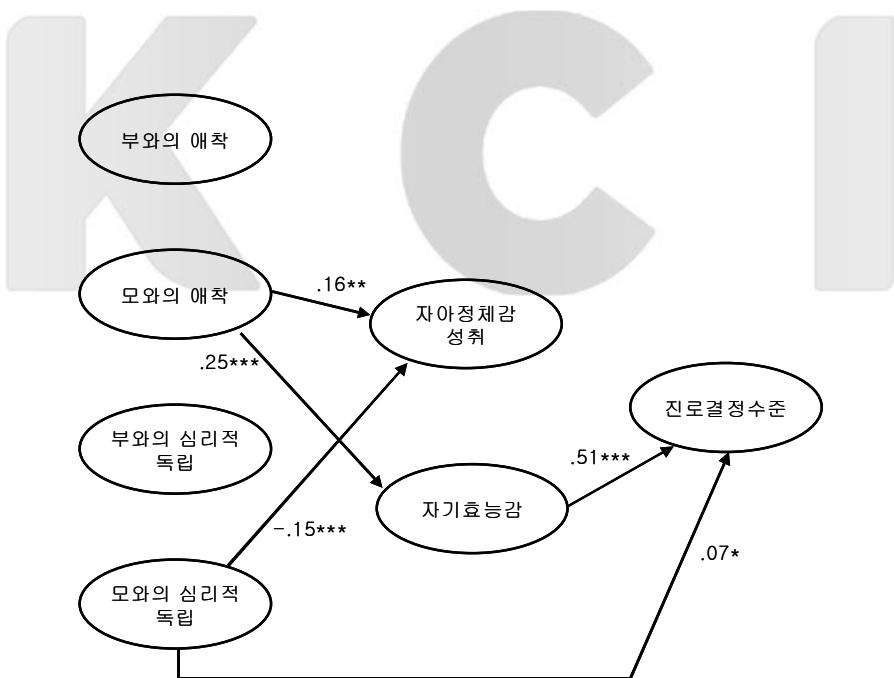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그림 3의 여학생의 경우, 모와의 심리적 독립만이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와의 애착($\beta=.16$, $p<.01$)과 모와의 심리적 독립($\beta=-.15$, $p<.001$)은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은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모와의 애착($\beta=.25$, $p<.001$)만이 자기 효능감($\beta=.51$, $p<.001$)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직접효과는 모와의 심리적 독립, 부와의 심리적 독립, 모와의 애착순이었으

표 9. 남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모와의 애착	.08	.09	.18
부와의 심리적 독립	.11	-.01	.09
모와의 애착	.12	.12	.12
자아정체감 성취	.09	-.09	-.09
자기 효능감	.35	-.35	.35
모와의 심리적 독립	.07	-.07	.07
자아정체감 성취	-	-	-
자기 효능감	.51	-	.51

며, 간접효과는 모와의 애착, 부와의 애착, 부와의 심리적 독립의 순임을 보여주었다. 전체 효과는 모와의 애착, 모와의 심리적 독립, 부와의 심리적 독립, 부와의 애착순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여학생의 경우 모와의 애착, 모와의 심리적 돋립은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와의 심리적 돋립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효과를 주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효과는 모와의 심리적 돋립이었으며, 간접효과는 모와의

애착이 자기 효능감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효과는 모와의 애착, 모와의 심리적 돋립의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가족변인과 개인변인 관계를 탐색하고 성별에 따라 양 부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중요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수준, 가족변인 및 개인변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결정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M=2.70$)이 여학생($M=2.57$)보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미결정 정도가 낮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고향자, 1992; 이영선, 1999; 김동준, 1997)와 일치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과 전반적인 경제적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하여 여성들의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은 여성 스스로 진로결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부와의 애착은 남학생($M=3.81$)이 여학생($M=3.6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와의 애착에서도 남학생($M=4.27$)은 여학생($M=4.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수경(1995)의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남성은 자율성, 여성은 애착으로 정의되고 있는 Chodorow(1978)의 성 역할 사회화개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와의 심리적 돋립은 여학생($M=10.50$)이 남학생($M=10.35$)보다 높았으며, 모와의 심리적 돋립은 여학생($M=9.25$)이 남학생($M=9.7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경(1995)의 연구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또한 이영선(1999)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이 부와의 심리적 독립에서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에서는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독립은 남·녀 성별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독립의 남·녀 차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남·녀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더 연구해 볼 과제라고 본다.

둘째,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은 진로결정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결과 전체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있어서 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와의 애착과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정체감 성취를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와의 애착($\beta=.14$)은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부와의 심리적 독립($\beta=-.09$)과 모와의 심리적 독립($\beta=-.09$)은 정체감 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개체화가 자아정체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던 정종건(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반면, 개체화의 직업관 영역에서 기능적 독립, 정서적 독립 및 갈등적 독립에서 높은 집단이 자아정체감에서는 성취 수준에 많이 분포되었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배재현, 1993; Hoffman, 1984; Josselson, 1973).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독립을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요인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 도구상에서 오는 차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개체화 곧 심리적 독립은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에 따라서 불명확하게 나타난

다는 Shulkin(1990)의 견해에 비추어볼 때,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정체감 발달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 독립은 정체감 성취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경로를 살펴보면, 부와의 애착($\beta=.12$), 모와의 애착($\beta=.25$) 및 심리적 독립은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분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Ryan 등(1996)의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성인 애착이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Bowlby(1988)와 Ainsworth(1989)가 언급한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전 생애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족변인인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단일 차원의 측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상담은 내담자의 생활사와 가족 환경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탐색과 수용을 통해 적절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면, 남학생의 경우, 모와의 애착($\beta=.08$) 및 부와의 심리적 독립($\beta=.11$), 모와의 심리적 독립($\beta=.12$)이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아버지와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 관여 과정에 발전적 요소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lustein et al., 1991; Lopez, 1989). 또한 모와의 애착($\beta=.12$)과 부와의 심리적 독립($\beta=-.17$)이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와의 애착($\beta=.23$) 및 모와의 애착($\beta=.25$)은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beta=.35$)은 간접적으로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부와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모와의 심리적 독립($\beta=.07$)이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와의 애착만이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을 통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어머니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인물로 인지된 선행연구(이재분, 1982)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 하나의 경로인 모와의 애착이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지만, 자아정체감 성취는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본 연구의 가족변인은 남·녀 모두에게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자아정체감 발달은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상담에 있어 학생 및 부모 각각의 성별에 따른 접근을 시도해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가장 진보적인 정체감 성취 수준에 있더라도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실은 여학생의 경우 개인자신보다 진로를 결정하는데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가족요인들을 탐색하고 양부모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그에 대한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게 필요하다.

넷째, 진로상담의 실제적인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을 개인변인으로

상정한 결과,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은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 요인이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내담자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며 자신감의 결여를 호소한다면, 진로상담에 있어 우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부모와의 관계를 해결하도록 조력한 다음에 진로상담에 임해야 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상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돋기 위해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이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고, 성별에 따라 각각의 부모를 달리해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상담의 차별적인 진단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실제적인 유용성을 주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원활한 진로 지도 및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결정 수준 연구에 있어서 각 하위 요인들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하위 요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진로결정 수준의 다양한 선행조건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위요인들을 활용, Vondrack, Hostetler, Schulenberg 와 Shimizu(1990)가 언급한 ① 혼돈과 좌절 ② 불확실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③ 접근 방법의 혼돈 ④ 외적인 장애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세분하여 연구를 한다면 구체적인 진로상

답 개입을 적용하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둘째, 가족변인인 부모와의 애착의 양 이외에 애착의 형태나 질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애착의 양의 지표를 제공해 주기는 하겠지만, 애착의 형태나 질을 구별하는 도구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애착의 형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애착과 진로발달 구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결정 수준을 설명하는 독립변인 중 부모-자녀 관련변인으로 애착과 심리적 독립만 사용하였다. 이외에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이혼가정, 결손가정, 실직 가정 등의 가족환경 변인을 포함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이해하는 더욱 포괄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았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의 심리발달에 있어서, 개인성보다 관계성을,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심리적 독립보다는 정서적 친밀성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중요한 내용은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가족변인에 대한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또한 가족변인은 진로결정 수준에 있어서 남·녀대학생이 서로 다르게 지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남학생은 양 부모와, 여학생은 어머니와 더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성별과 가족변인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준 (1997). 진로미결정 문제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정, 신순란 (1999).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교육학 연구, 17(1), 34-54.
- 배제현 (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 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설희 (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 (1991). 성인지녀 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 생활 변화의 적응. 여성 연구(91. 겨울), 111-144.
- 윤운성 (1996). 가정환경과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문화비교 연구. 교육심리연구, 10(3), 159-182.
- 이영선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불안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분 (1982). 중·고교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엽 (1994). 심리적 독립척도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생활적 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권 (1998). 청소년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수경 (1995). 애착, 심리적 독립성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dams, G. B., & Bennion, L. D.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427-453.
- Blustein, D. L., & Noumair, D. A. (1996).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433-441.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 196-202.
- Blustein, D. L., Walbridge, M. L.,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9-50.
- Blustein, D. L. & Phillips, S. D. (1990). Relation Between Ego Identity Statuses & Decision-Making Styles. *Journal Counseling Psychology*, 37, 160-168.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Chickering, A. W. (1969).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uzain, C., Debry, M., & Liesens, V. (2000). Separation from parents in late adolescence: The Same for boys and girl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9, 79-91.
- Guerra, A. L., & Braungart-Rieker, J. M. (1999).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identity formation and parental relationship factor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 255-266.
- Hoffman, J.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04-414.
- Josselson, R. (1973). Psychodynamic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 (1), 3-52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9.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Ryan, N. E. , Solberg, V. S., Brown, S. D. (1996). Family Dysfunctio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84-89.
- moderators. *Journal Vocational behavior*, 21, 318-329.
- Vondracek, F. W., Hosteler, M., Schulenberg, J. E., & Shimiu, K. (1990).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98-106.

원고접수일 : 2001. 1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2. 2. 20

게재결정일 : 2002. 2. 28



Shulkin, A. T.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dentity status among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Solberg, V. S., Good, G., & Nord, D. (1994). Career search self-efficacy: Ripe for applications and intervention program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 63-72.

Taylor, K. M. (1982). An investigation of vocational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 correlates and

A Study o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SuGill Park YoungHi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to career decision level in late adolescence and to represent any difference to gender in their parents. 1,140 university students were participated from five universities throughout Korea. Career decision level scale and parent attachment scale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scale, self and identity scale, and self-efficacy scale. Major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in career decision level. 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in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mother,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male students in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father. Second, According to path analysis, attachment to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parents had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mong these variables, the family variables that had direct effects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were attachment to mother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parents. The variables whos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both significant were attachment to mother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parents. And, attachment to mother had the greatest total effect. Third,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the career decision level showed that attachment to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parents,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mong these variables, the family variables that had direct effects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male students were attachment to mother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parents. And, attachment to mother had the greatest total effect.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the career decision level showed that attachment to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mother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mong these variabl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mother had direct effects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students, and attachment to mother had the greatest total effect.

Key Words : career decision level, attachment, psychological independence, identity achievement, career search self-efficacy